

## 다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살기 좋은 인권도시 고양 만들기”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은 인터넷에 있는 인권침해 사례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인권침해 사례라고 검색어를 치면 정말 많고 어이없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찾은 사례는 “똥똥하다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인데요. 이 사례는 회사에서 일하던 회사원이 회사 관계자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똥똥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에서 나가라는 정말 무 개념적인 말을 했는데요. 똥똥해도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은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백인과 흑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인데요. 이 사례는 정말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슬픈 사연이죠? 옛날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을 정말 다른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버스에서도 흑인자리, 백인자리 딱딱 구별이 되어 있고 백인은 정말 소중한 존재처럼 대해주지만 흑인은 마치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정말 심하게 흑인과 백인을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흑인 차별을 없애 아주 역사적인 인물 “링컨”이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흑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위험을 무릅 쓰고 항의를 했고 결국 흑인차별을 없앴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고 이때 내가 만약 흑인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 시대의 흑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 슬프고 이런 차별을 참아낸 흑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링컨 대통령의 노력이 흑인을 백인과 같이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을 받는다고? 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고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여러분 한번만 깊이 생각해주세요...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일을 하려고 왔을 뿐인데 차별을 당하고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은지 제발 한번만 입장 바꿔 생각해주세요. 저는 흑인, 뚱뚱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 3사례를 보면서 3분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니 얼마나 슬프고 억울할지 예상이 되어 정말 3분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 부분의 사례를 읽고 우리 모두 이 3가지 사례의 아픔을 느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권도시 고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권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례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요리를 할 때나 문제를 풀 때 무작정 어렵고, 심화적인 요리를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완벽히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 ‘인권도시 고양’ 만들기도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하면 허점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베이스입니다.

서로의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인데요. 이 말은 아까 앞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하기 위해 썼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정말 많이 발달하였고 인터넷으로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베이스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큰 회관이나 건물을 빌려 하루 동안 인권과 차별 등 여러 가지에 대해 배운 뒤 서로 이야기를 하며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읽는 것만으로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 소통을 하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문제를 풀며 문제를 보고 듣기만 한다면 그 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문제를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직접 손으로 풀어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인권도시 고양’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듣고, 보지만 말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실현인데요!

아까 앞에 나온 사례 3가지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2가지 베이스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하루 동안 일상을 살펴보며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입장을

바뀌 생각한 사람들의 진짜 진심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글에 나온 이해, 소통, 공감 이 3가지가 ‘누구나 살기 좋은 인권도시 고양’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좋은 화목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